

지역 소식통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김제시지회 장학금 전달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박준배)에 따르면 2일 사단법인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김제시지회(지회장 강동귀) 관계자들이 재단을 방문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장학금은 임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정성을 모아 기탁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의미를 더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집단 식중독  
예방교육 · 현장점검

김제시 보건위생과(과장 송성용)는 최근 어린이,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위생취약시설인 소규모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의 급식 시설 관리자와 종사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김진검 강사를 초빙해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시행했다.

교육은 △식품안전관리 중점요령 △개인위생관리 △식재료 위생관리 요령 △식중독 발생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해 위생 점검 사진, 올바른 손씻기 방법 시범을 통해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대상자들의 실천 의지를 이끌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양성평등기금사업  
지원단체 회계교육

김제시는 2일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에서 '2020년 김제시 양성평등 기금지원 공모사업' 선정단체에 대한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문순자 여성단체협의회장 및 김제시자원활동센터 운영에 회장 등 4개 단체 8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교육을 진행한 여성가족과 김흥기 여성정책담당은 사례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고, 청렴서약을 통한 예산집행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김제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은 지난 4월 10일 양성평등위원회 심의회에서 기금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사업비의 적정성 및 지역사회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4개 사업에 1,750만원을 지원 결정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헬기소음 민원, 실질적 대책 절실”

## 완주군 이서면 주민들, 전주항공대대 헬기운항 소음 피해 전주시에 이주대책 수립 · 직접보상 방안 등 대응책 요구

전주항공대대의 완주군 이서면 상공 헬기운항 소음피해와 관련, 2일 이서면 주민들이 전주시의 실질적 대책을 강력 촉구했다.

헬기소음 민원은 전주항공대대가 지난해 1월 전주시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이전하면서 시작했다. 국방부가 정한 헬기 항공노선이 기존의 김제·익산·전주 일부 상공을 지나는 것에서 갑자기 완주 이서면 마을 상공까지 추가돼 주민 반발로 이어졌다.

전주항공대대의 완주군 상공 일방적 헬기운항과 관련, 완주군과 국방부·전주시·반대위는 그동안 다섯 차례 회담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고, 최근 국방부가 헬기 장주노선을 조정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서면 신기마을 상공을 운항하고 있어 심각한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마을 주민들이 이주대책 수립과 직접보상 방안을 전주시에게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성일 완주군수와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달 25일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전주항공대대 소음피해 민원과 관련한 '원 포인트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군수는 이 자리에서 “완주군 이서면 신기마을 주민들이 극심한 헬기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전주시에서 주민들의 뜻과 의견에 따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 김 시장은 이에 대해 “장주노선이 어느 정도 조정된 만큼 완주 마을주민들을 위한 소음피해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지만, 신기마을 주민들은 “양 단체장 회담 이후에도 전주시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의 미온적인 태도에 이서면 반대위는 “헬기소음 민원과 관련한 전주시의 해결방안 제시가 계속 지연될 경우 단체 활동도 불사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자칫 사태의 장기화마저 우려되고 있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전주시가 처음부터 완주군·완주 주민들과 협의 없이 추진해온 사안인 만큼 이주대책을 포함해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 실질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은 전북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과 지난 1일 완주군에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청년 포레스트' 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 “청년들 신체·정신까지 보듬는다”

### 완주군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청년포레스트' 업무 협약 체결

완주군이 청년들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까지 보듬는다.

완주군은 전북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과 지난 1일 완주군에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청년 포레스트' 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전북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은 보건복지부 청년사회서비스사업으로 청년층 대상 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위해 설치 운영된 사업단이다. 사회적기업 (주)휴먼제이앤씨에 위탁해 청년포레스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춘 포레스트 사업은 도내 만19~39세 이하의 청년에게 청년들의 자존감 증진, 우울 감소, 스트레스 관리, 자아탐색, 취업역량강화, 신체건강 및 활력 증진에 이르는 신체 및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군 사업단은 업무 협약을 통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협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완주군 청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정신 및 신체건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고용 및 학업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신 건강 상담과 개인 PT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심각한 청년실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사업단의 취업 및 진로 관련 특강,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단 관계자는 “완주군 지자체와 찾아가는 서비스 업무협약을 사례로 청년들을 위한 서비스 지원 사업을 다양한 기관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완주군 관광 콘텐츠, 청년들의 아이디어 합세

### 경기대 관광개발학과 5명 학생 완주 관광 스토리 제작 · 제안

2021~2022년 방문의 해를 준비하고 있는 완주군 관광 콘텐츠가 더욱 풍부어지고 있다.

2일 완주군에 따르면 최근 경기대학교에서 관광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완주군을 찾아 자신들이 직접 만든 완주 관광 콘텐츠를 제안해왔다.

단순히 이름난 명소를 찾아오는 것에 그치는 것에 아니라 완주를 공부하고, 완주의 관광 문화를 직접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완주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이 대학생들은 완주를 알면 알수록 숨은 비경과 역사, 체험까지 알아가는 재미를 느껴 직접 관광 콘텐츠를 제작해왔다고 했다.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4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자칭 '못난 지식들의 잔머리' (박준형, 김광석, 김다솔, 김



경기대 관광개발학과 '못난 지식들의 잔머리' (박준형, 김광석, 김다솔, 김홍원, 이대열)팀

홍원, 이대열)팀은 '완주(完州)를 완주(完酒)하다'는 주제로 술 테마박물관을 중심으로 관광을 풀어냈다.

단순한 전시관람 형태가 아닌 교육과 경험 공간 놀이터로의 역할의 필요성을 제시한 이들은 술을 테마로 청춘의 '흥'과 '사랑'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만들자며 안주(安酒)zone, 저갓거리(지역주민zone), 낙주(樂酒)zone 등을 제안해 일선 공무원들의 관심을

모았다.

완주군은 지속적으로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오는 8월말까지 매력적인 관광자원 테마 가이드를 완성할 예정이다.

완주군수는 “최근 관광 트렌드와 감성 스토리를 담은 관광자원을 발굴해서 완주의 매력을 알리고,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성덕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다과회

김제시 성덕면(면장 강기수)은 2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20명을 대상으로 면사무소 앞 모정에서 팔빙수를 대접하고 다과회를 실시했다.

이번 다과회는 무더운 날씨에도 환경정화활동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로·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맞춤형 복지팀 직원들이 직접 만든 달달한 수제 팔빙수를 대접하는 시간을 가져 참여자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여자 어르신들은 이날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고충과 건의사항을 이야기 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앞으로 즐겁고 안전하게 일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한편 성덕면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 비접촉 발열 체크 및 손소독 후 두팀으로 나누어 다과회를 실시해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시, 어린이집 대상 식중독 예방교육

김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한성희)는 2일 관내 어린이집 원장 40명을 대상으로 센터 교육실에서 장출혈성 대장균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중독 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최근 발생한 유치원 집단 급식 사고와 관련하여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었으며, 식중독 발생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급식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장출혈성 대장균의 원인 및 예방법 ▲반조리 제품 조리 시 주의사항 ▲식품유형별 조리 시 주의점 및 보관방법, 배식관리 ▲보존식 채취 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였으며, 식중독 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식중독 예방 전문가인 급식관리지원센터 김복덕 팀장이 교육을 진행해 식중독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또한 김제시에서는 어린이집 급식 위생 관리를 위해 급식관리센터, 보건소 및 아동복지담당 부서가 협력하여 7월 한달간 급식위생 중점점검 기간을 병행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시어린이집연합회 유정원 회장은 “최근 유치원에서 융합성 요독 증상을 보이는 식중독 발생으로 다시 한번 급식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급식위생 관리의 물론 코로나 관련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어린이집은 위생에 가장 취약한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급식위생이나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드리며,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